



[금융] 부·울·경 혁신금융 메카로 BNK금융 5000억 지원 05



Economy

코스피	↑ 2067.40 (+22.79)	코스닥	↑ 641.46 (+8.51)
금리 (우대대출)	→ 1.28 (0.00)	환율 (원/달러)	↓ 1184.90 (-3.90) (14일)

돈 빌리기 어렵고 R&D 걸들고 수도권 쓸림 여전

“中企 위한 나라는 없다”

정부 혁신성장정책 유명무실 자금·경영애로 갈수록 심화

RG 발급, 대기업 보다 낮고 지방中企 ‘제2금융권’ 의존 청년 38%, 1년채 안돼 퇴사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모양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자금·경영 애로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은 여전했다. 해외진출 기업은 높은 법인세를 지적하며 국내 복귀를 꺼렸고, 국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38%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나갔다.

14일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연구·개발(R&D)에 106조1509억원을 투자했다. 국가 전체 R&D 투자

(2016~2019년 산업은행 선수금 환급보증 현황)

	발급건수	보증금액	당일처리
대기업	127건(78%)	5조8,834억원(90.3%)	124건(97.6%)
중견기업	25건(15.4%)	6,010억원(9.2%)	25건(100%)
중소기업	10건(6.1%)	254억원(0.3%)	3건(30%)
합계	162건	6조 5,098억원	152건(93.8%)

(국가·중소기업 R&D 현황)

구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 R&D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05	787,892
중소기업 R&D	98,371	111,520	637,341	112,367	122,061	131,738	136,909
비중	19.7	20.1	659,594	17.6	18.5	19.0	21.9

금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곳은 2004년 2만714개에서 2017년 4만5320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R&D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른바 ‘사업화 성공률’은 50.1%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매출액)도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

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14년 2.39%로 감소했고, 2012년의 경우 -0.94%까지 떨어졌다.

기술 개발은 물론 은행권 차별에 따른 경영 애로까지 겪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

까지 대기업 127개 사업 중 97.6%에 해당하는 124개의 RG를 신청 당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모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했고, 길게는 108일까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차별도 심각하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밝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은 ‘해외온렌딩’ 지원은 2016년 1조원에서 2017년 1조9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조원을 초과했다. 해외온렌딩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4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19 제약&바이오 포럼’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

메트로경제가 오는 10월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19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세번째 열리는 이번 제약바이오 포럼의 주제는 ‘다시, 바이오- 혁신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종 제약·바이오 벤처들이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정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정책과장, 장은현 쉐링임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강연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약 후보 물질 개발과 임상, 기술수출, 허가 등 신약 개발 전 과정에서 실패를 줄이고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다시 바이오 - 혁신의 파이프라인
- ◆일시 : 10월 24일(목) 오전 9시~12시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최 : 메트로경제
- ◆등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metro



G2 무역합의에 코스피 상승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22.79포인트(1.11%) 상승한 2067.40으로,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51포인트(1.34%) 오른 641.46에 마감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웨이 인수’ 방준혁, 게임·구독경제 두토끼

넷마블, 코웨이 위협 대상자로 인수금액 1조8000억원 규모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웅진코웨이 인수라는 카드를 꺼내며 승부수를 던졌다. 정채된 게임 사업에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웅진씽크빅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넷마블을 웅진코웨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넷마블은 웅진코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자사 미디어행사인 ‘제4회 NTP’에서 발표하고 있다. /넷마블

웨이의 지분 25.08%를 1조8300억원대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양사가 실사를 진행하면 본계약에서 최종 인수가가 정해진다.

코웨이인수 필요자금은 자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올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조72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막대한 현금 보유력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셈이다.

추가 인력 충원이나 넷마블 내 사업 전담부서 신설 여부, 구체적인 라인업 추가 등은 인수

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 사장원 투자전략담당 부사장은 이날 웅진코웨이 인수 관련 컨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넷마블은 다양한 미래사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이고 수익 창출은 제한적 상황”이라며 “코웨이 인수를 통해 향후 스마트홈 영역으로 발전하는 플랫폼형 구독경제 사업을 더해 사업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

검개혁 발표 직후 사의표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본인과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심경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밝혔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r